

결혼이주여성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를 위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Research on Married Immigrant Women's Participation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장진경(Jin Kyung Chang), 손서희(Seohee Son)*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cruiting married immigrant women to participate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We used focus group interviews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with ODA, their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ODA, and the resources and barriers to ODA particip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ere actively engaged in the labor force in Seoul and Gyunggi areas.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Four themes were identified including the women's experiences, motivation, barriers, and resources for ODA participation. Out of the 14 women, three had participated in the ODA and were happy with the experiences. The rest of the women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ODA that supported their home countries. The results also highlighted that these married immigrant women had capabilities including a strong desire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rom their families, but they also had barriers to overcome such as a lack of work capacity, child care burden, and difficulty forming relationships with Korean colleagues. Despite these barriers, they were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ODA sinc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for them to help their home country and to improve awareness of Korea and married immigrant women. It is important to develop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these women to enhance the work skills that are needed in the ODA.

▲주제어(Key words):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결혼이주여성(married immigrant women), 일자리(employment), 자원(resource), 취업 방해 요인(employment barrier)

I. 서론

한국은 2010년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 분야에 새로운 공여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의 확대 및 관심 증대에 따라 ODA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ODA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ODA 인력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U. Kwon, 2011). 또한 최근 수원국의 현지 문화와 정치·경제·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J. Kim, H. Cho, D. Lee, & T. Lee, 2014)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ODA 인력의 필요 역량

• 본 논문은 여성가족부(2015)에 제출한 '다문화가족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Corresponding Author : Seohee Son,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eongpa-ro 47-gil 100, Yongsan-gu, Seoul, 04310, Korea, tel: +82-2-2077-7902, E-mail: sson@sm.ac.kr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ODA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ODA 역량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ODA 사업 참여에 있어 수원국의 언어 및 문화 이해가 주요한 역량임을 고려할 때, 최근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활용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2015년 기준 82만 명 내외이며,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가 30.5만 명에 이르며, 자녀가 20.8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ODA 사업 참여 가능성 모색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ODA 사업 참여가 단기간 내에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한국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서툰 한국어, 적합한 일자리를 못 찾아서, 자녀양육 및 가족의 반대 등의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다(S. Jang, I. Kim, R. Lee, I. Jang, & J. Yoo, 2009).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및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모국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활용하여 해외 지역사회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J. Ahn, 2014; N. Jang, 2014; E. No, 2013). N. Jang(2014)은 한국 및 모국 문화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이중언어 사용이라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사회개발 요원으로 개발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훈련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수원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결혼이주여성을 ODA 인력으로 양성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수원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참여와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ODA 참여 방안 마련 및 활용분야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의 ODA 참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ODA 사업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활용하여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수원국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중언어 역량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과정을 개설해 모국의 새마을운동 전과 전도사로 육성하고 수료생들을 글로벌 새마을리더로 위촉하여 새마을세계화 사업관련 통번역서비스를 비롯해 국제새마을 강사, 현지 코디네이터 등 글로벌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E. No, 2013). 또한 2013년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 현장에 대학생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새마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였다. 해외봉사단으로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봉사단 참여 경험을 통해 모국을 돕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 사회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J. Ahn, 2014). 이처럼 ODA 사업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참여 확대와 모국과 한국 사회 간의 연결 등의 긍정적 경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확대가 기대되며, 이를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ODA 참여 방안 및 인력 양성 계획 수립에 앞서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의향 및 이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ODA 참여 의향은 어떠한지, 사업 참여를 위한 자원은 무엇이며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일자리 참여 지원에 대한 실천적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인 49.9%와 비교해 9.2% 가량 더 높는데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연령 평균과 관련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구성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결혼이주여성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또한 비취업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지난 1주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은 9.6%로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한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31.1%), 서비스종사자(21.7%),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4.6%) 순으로 서비스직 및 단순노무직 종사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일자리 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결혼이주여성이 언어문제(34.0%),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을 주로 경험(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욕구 및 취업 경험에 대한 연구(E. Jeon, 2014; S. Kong & S. Yang, 2014; M. Park, H. Shin, & M. Lee, 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관련 요인(I. Yang & M. Min,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정책적 지원 방안(S. Kim, A. Cho, & H. Min, 2010; H. Ko & S. Kim, 2010; N. Lee & J. Chung, 2014; I. Yang & M. Min, 2010) 등의 주제가 연구되어 왔다. 우선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 Jang et al., 2009; M. Park et al., 2014).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높은 경제활동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 다양한 직업 선택 기회의 부재,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감 등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S. Kim et al., 2010; Y. Kim, 2011; N. Lee & J. Chung, 2014).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 본국 가족 부양뿐만 아니라 직업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느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 일하는 어머니로서 가지는 자신감과 이에 따른 가족관계에서의 긍정적 영향(Y. Kim, 2011; M. Park, H. Shin, & M. Lee, 2012) 등을 경험함으로써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함께 결혼이주여성 개인 및 가족, 사회적 역할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와 맞물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대상 서비스는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에서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지원이 취업 지원 서비스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관 등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기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의 기초적인 직업준비교육에서부터 다문화 강사, 이중언어 강사 등의 결혼이주여성 특화 직종 개발 및 교육, 제빵제과, 한식조리, 이미용 등 여성 집중직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H. Ko & S. Kim, 2010).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인적자원 등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I. Kim, I. Yang, J. Hwang, & H. Ko, 2008).

최근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제공에 있어 여성들의 학력, 연령, 출신국 등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N. Lee & J. Chung,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 관련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진 언어나 문화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이들의 강점을 살린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N. Jang, 2014; Y. Kim, 2011; H. Ko & S. Kim, 2010). 결혼이주여성 또한 취업하기 희망하는 직업으로 본인의 언어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직업이나 일반 생산직·서비스 직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Jang et al., 2009).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 강사나 통번역사 등으로 고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아동영어지도사로 활동하는 등 자신이 지닌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적합 직종에 대한 개발을 중심으로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이 증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직종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아 다문화강사나 통번역사, 이중언어

어강사 양성 수준에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H. Ko & S. Kim, 2010). 이에 대해 I. Yang and M. Min(2010)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직종(원어민 강사, 다문화 강사,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사 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 통합의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급여가 적고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직종은 한국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결혼이주여성이 진입하기 상대적으로 좋으므로 이러한 직종의 시장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H. Ko & S. Kim, 2010).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본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가족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직업 참여에 따른 보람과 의미를 찾고 있음을 고려할 때(Y. Kim, 2011), 모국과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 및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결혼이주여성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에 대한 양적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ODA 총 규모는 약 2조 1,619억 원이며, 2017년에는 약 2조 7,296억 원으로 예상되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Ministers of Related Ministries, 2016).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ODA 사업에 참여할 인력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 참여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사업발굴에서부터 실시 및 평가에 이르는 원조 전 과정에서 수원국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골고루 갖춘 전문 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H. Jang, 2008). 한편 ODA 사업 수행에 있어 공여국인 선진국 주도의 파트너십보다 공여국과 수원국, 시민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J. Jung & J. Song, 2014). 또한 수원국의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의 현지 문화와 정치·경제·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J. Kim et al., 2014).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ODA 수원국에 대한 이해는 ODA 사업 참여 인력에게 있어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58.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19.2%, 필리핀 5.7%, 일본 4.3%, 캄보디아 2.1%, 몽골 1.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우리나라 ODA의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4)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출신국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이 ODA 사업의 주요 수원국 출신임을 고려할 때, 주요 수원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및 인력 활용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수원국의 언어 및 문화 등 현지문화에 정통함으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체화된 능력을 활용한다면 ODA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현지인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용이함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적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한국말이 능숙한 한국계 중국인의 높은 취업률과 비교해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또한 언어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의 경우 영어와 중국어 등에 대한 높은 수요와 달리 다른 외국어의 경우 취업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H. Ko & S. Kim, 2010). 이는 영어나 중국어와 달리 언어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언어와 관련한 직종에 취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뜻하며, 실제로 베트남, 몽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높다(S. Kim et al., 2010). 그러므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의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과 관련한 직종 개발은 이들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모국과 한국을 잇는 역할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 Ahn, 2014; M. Park et al., 201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는 한국사회에서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모국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역할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는 현 시점에 ODA 사업 참여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두어, 한국어 사용이 능숙하고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활발하게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ODA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있거나, 통·번역사 및 다문화 이해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추천을 받아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ODA 사업 참여 가능성 파악을 목적으로 함으로 면접 대상을 한국 ODA의 주요 수원국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1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몽골 6명, 베트남 5명, 캄보디아 2명, 필리핀 1명이었으며, 면접 당시 연령은 27세부터 46세까지 분포되어 있다(<Table 1> 참조). 이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3년에서부터 18년까지 다양하였으며, 결혼 지위는 재혼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기혼이었고, 1명은 이혼한 상태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8명, 단기대학졸업 3명, 대학 졸업이 4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직업은 통번역사, 다문화 이해 강사, NGO 활동가, 다문화 협동조합 대표, 다문화 산후관리사, 언어강사, 무역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모국어나 모국 문화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전 직업을 살펴보면,

5명은 직업을 갖지 않았으며, 농기계 관련 업무, 우체국, 회계 사무실 근무 등 현재 직업과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초점집단면접 과정과 자료분석 방법

초점집단면접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회기 당 4 ~ 5명이 참석하여 대략 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소속 대학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으며, 모든 면접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초점집단면접 수행에 앞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전문가와 ODA 및 국제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등 총 10명의 자문을 바탕으로 ODA 인력의 필요 역량, 결혼이주여성의 ODA 참여 및 활용 가능성,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자문회의 결과와 ODA 인력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 면접 질문을 구성하였다. FGI는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응답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질문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FGI에 사용된 면접질문은 이주배경은 어떠한지,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한국에서의 취업 경험은 어떠한지부터 시작하였으며, 면접이 진행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ODA 사업 참여 경험, 참여 의향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모두 녹음되었고, 녹음기로 녹취된 면접 자료는 꼼꼼하게 전사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일차적으로 연구자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읽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No. of FGI	Participant	Country of Origin	Age	Marriage Type	Age of Child	Duration of Stay in Korea	Education	Job before Immigration	Current Job
1st FGI	A	Mongolia	46	Married	13, 10	18	High school	Trade business	Trade business
	B	Cambodia	29	Married	4, 1	4	College	NGO staf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	Mongolia	31	Married	7, 6	8	High school	None	Multicultural education instructor
	D	Philippines	45	Married	22, 20	3	College	Office worker	English instructor
	E	Vietnam	34	Divorced	7	8	High school	Skilled worke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2nd FGI	A	Cambodia	35	Married	9	10	Junior college	Office worker	Cambodian language instructor
	B	Mongolia	38	Married	13, 8	8	Junior college	Office worker	Counselor of multicultural families
	C	Vietnam	27	Married	6	6	Junior college	Non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D	Mongolia	39	(Re)Married	18, 7	15	High school	Non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3rd FGI	A	Vietnam	32	Married	9	9	High school	Office worker	Postpartum care work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B	Mongolia	38	Married	11, 7, 6	13	High school	Sales	CEO of a cooperative society
	C	Vietnam	43	Married	13	18	College	Office worker	NGO activist
	D	Vietnam	31	Married	9	10	High school	None	Multicultural education instructor
	E	Mongolia	37	Married	12, 7	12	High school	Non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으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도출하는 중심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V. Braun & V. Clarke, 2006), 분석 과정은 질적연구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 12를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반복해 읽으며 의미단위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비교분석하여 잠재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때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병행하는 계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하위 코드를 통합하는 중심주제(theme)를 도출하고 명명화하였다. 이후 공동연구자와 함께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IV.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도출된 범주와 하위범주는 <Table 2>와 같으며, ‘ODA 사업 참여 경험’, ‘ODA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유’, ‘ODA 사업 참여의 어려움’,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자원’의 네 개의 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별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ODA 사업 참여 경험

ODA 사업 참여와 관련해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결혼이주여성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을 통해 ODA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ODA 사업 참여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두 명의 결혼이주여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통번역 등의 역할로 참

여하였으며, 나머지 한 명의 결혼이주여성은 KOICA에서 주관하는 현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남양주시에요. 남양주시가 울란바트로 몽골 수도랑 국제결연 14년 정도 협력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4년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열흘 동안 공무원들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갔다 왔는데..... (FGI 3차, 결혼이주여성 B)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파견에 앞서) 대학생들이 와서 배웠거든요. 대학생들이 한국말을 몽골말로 통역해줬고, 몽골 책까지 제가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런 책 같은 거 가지고 몽골 가서 나무 심었어요. (FGI 2차, 결혼이주여성 B)

저는 2012년 KOICA 봉사 갔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학교에 가서 직접 아이들 만나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좋았고, 베트남 병원에서 봉사활동하고, 건축회사도 가서 직접 페인트칠하고 했는데 활동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C)

ODA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세 명 중 두 명은 일회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면,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4년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현지 연수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국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으며, 성취감을 경험하였음을 이야기 하였다.

Table 2. Them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Participation in the ODA

Category	Subcategory
Experience of ODA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riences with ODA participation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or KOICA Proud of working for my home country
Motivation for ODA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roving awareness of Korea and married immigrant women Meaningful work tha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ir home country Having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home country to their children and to meet with their families in their home country Work support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home country
Barriers to ODA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ck of work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n't know about the local situation due to their long-term stay in Korea - Difficulty with Korean language and jargon Difficulty forming relationships with Koreans Child care burden
Resources for ODA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ong desire for vocational development Support from family members Understanding support needed for the home country

국제 교류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뿌듯하기는 해요. 한국에서 몽골 발전을 위해서 통역이라든가 해줬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고. (FGI 3차, 결혼이주여성 B)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내 나라에 직접 가서 하니까 진짜 마음이 뿌듯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3년 지났는데 그때 모습이 다 기억에 남아 있어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C)

기분 너무 좋고요,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FGI 2차, 결혼이주여성 B)

2. ODA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유

FGI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전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ODA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모국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 자녀에게 모국 소개 및 가족 만남의 기회 마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1) 한국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 대상 ODA 사업 참여는 모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 발전상을 공유함으로써 모국 발전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였다.

예전에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많거든요. 지금 많이 투자하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질 것이에요. 아니면 유럽 같이 한국도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FGI 2차, 결혼이주여성 C)

저는 한국 문화, 한국이 빨리 발전된 것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FGI 2차, 결혼이주여성 A)

한편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을 돕는 ODA 사업의 한 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모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 맨날 때려죽는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너무 강하다 생각해요. 우리를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왜 한국 남자랑 결혼하냐고. (FGI 1차, 결혼이주여성 A)

주변 사람들한테 ‘아 애는 한국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되게 대단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저는 몽골가면 대통령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거죠... 와 애는 멋있다, 되게 높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 그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니까 그것도 괜찮고. (FGI 1차, 결혼이주여성 A)

아 우리 한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이 ‘와 대단하게 생활을 잘 하면서 join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FGI 1차, 결혼이주여성 C)

한 참여자는 ODA 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모국 사람들의 인식 개선 뿐 아니라 모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몽골에 안 가본 사람들은 TV에 보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몽골 사람들은 말 다 잘 타는 줄 알고, 양고기 뜯어먹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도 알고. 한 사람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건 주변 사람이 5명이, 5년 걸려도 10명만 늘어도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B)

2) 모국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모국을 대상으로 하는 ODA 사업 참여를 통해 모국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특히 보다 발전된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이 모국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도와주면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고 보람을 느껴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D)

저는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월급 정도는 괜찮고. 집에서 되게 좋아해요, 지금 애들이 컸으니까. 일단은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언어를 가지고, 한국어만 가지고. (FGI 1차, 결혼이주여성 A)

내가 우선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것 배워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FGI 2차, 결혼이주여성 B)

베트남 가족이나 베트남 사람들 서로 같이 발전 위해서 좋을 거 같아요. (FGI 2차, 결혼이주여성 C)

캄보디아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FGI 2차, 결혼이주여성 A)

3) 자녀에게 모국 소개 및 가족 만남 기회 마련

모국을 대상으로 하는 ODA 사업 참여는 결혼이주여성 이 자녀들에게 모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모국 방문 기회를 통해 모국에 있는 가족과 자녀 간의 만남의 기회가 빈번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의 주요한 동기로 나타났다.

베트남-한국 자주 갈 기회 있으면 좋겠고. (FGI 3차, 결혼이주여성 D)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린 애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면 모국 문화도 조금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여기도 살면서 자기나라 문화를 알 수도 있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나라 문화인데도 몽골말을 배울 수도 있고. (FGI 1차, 결혼이주여성 C)

얘기 데리고 친척도 만나고, 만나는 게 너무 기

빠요. (FGI 1차, 결혼이주여성 B)

4) 모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지원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이해는 ODA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DA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서 사업하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끼리 해요. 한국 사람만 망합니다,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보다 같이 한다면 우리도 좋잖아요. 같이 일을 하면 훨씬 성공 사례가 될 거예요. (FGI 1차, 결혼이주여성 A)

몽골 책까지 제가 만들어 선물로 줬어요.... 그 책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FGI 2차, 결혼이주여성 B)

3. ODA 사업 참여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의 ODA 사업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 또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적극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직업 활동 수행에 있어 한국어 및 전문 지식 부족,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오랜 한국 생활로 인해 모국 현지사정에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 지식 부족과 모국 현지 감각 부족은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업무 역량 부족

능숙한 한국어 능력과 해당 업무 지식 및 용어 이해는 업무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 역량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비교적 한국어 사용이 능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전문화 될수록 전문용어 사용 및 전문 지식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점은 한국어 복잡해요.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인데 말투 때문에 100%, 원하는 만큼 못 전달해서 어떨 때는 좀 속상한 점 있어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D)

편견보다 법원을 가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이번에 법원에서 법 관련 책 보내줘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모르니까. 첨에는 그런 게 없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당황해요. 옆에 상담사가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지만 자꾸 긴장이 돼요. 혹시 내가 잘못 번역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내가 책임 받는 느낌? 수출통역도 마찬가지로 전문용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책 있으면 통역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 몽골 단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문용어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문서 작성할 때. 그럴 때 내가 외국 사람인거 확실히 느껴요. 공식적으로 서류 작성하고 보낼 때, 그때 제 스스로 작아져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E)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녀양육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모국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현재 직업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오랜 한국 거주로 인해 모국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은 ODA 사업 참여를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요인이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몽골 소식 듣고, 차이점 뭐가 있나.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몽골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12년 넘었으니까. (FGI 3차, 결혼이주여성 B)

되게 오래 됐잖아요. 집에 안 간지 지금 18년. (FGI 1차, 결혼이주여성 A)

고향간지 꽤 되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FGI 2차, 결혼이주여성 D)

2) 한국인과의 관계 어려움

다른 결혼이주여성은 직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 인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는 결혼이주여성의 일 처리에 대한 기

다림이나 여유를 주는 등의 배려를 하지 않아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내가 조금 부족할 때, '이거를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바로 '한국인 선생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조금만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 못하고 '한국인 선생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한국 선생님이랑 통화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러면 있다가 다시 전화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보다 시간이 더 들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되게 급하게. (FGI 3차, 결혼이주여성 B)

외국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관계 유지가 힘든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경 쓰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FGI 2차, 결혼이주여성 C)

다른 담당자가 옆에서 한숨 쉰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엄청 작아졌어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리고. (FGI 3차, 결혼이주여성 E)

3) 자녀양육 부담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거나, 결혼이주여성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어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감을 빈번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직업 활동의 제한을 이야기 하였다.

일 할 때는 만족해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 때문에 신경 써요. 예를 들어 경찰서, 서울청에서 민간 통역원으로 3년째하고 있거든요. 서울청하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부르니까 어떨 때는 먼데서 부르면 가긴가요. 그리고 조사가 길어져서 새벽에 들어가야 하니까 애들끼리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당신이 애들 좀 데리고 가라고 하면 '아~뭘야~'이렇게 해요. 애들 어리니까 신경 쓰여요. 그래도 그만큼 수입은 남으니까 좋기는 해요. 애들 어리고, 남편 말고 봐줄 사람 없다 보니까 약간 걸려요.... 저는 예전에도 일을 많이 하다가 그만 둔 이유도 엄마가 없으니까 애

들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만 뒀거든요. 지금도 집에 있으니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없어도 잘 하고 있으면 나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면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 상황 봐서 애네들이 괜찮다 하면 가겠지만 중학생이면 공부해야 되고, 애들을 잡아야하는데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상황 봐서 내가 나가도 지장 없으면 가능할 거 같아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E)

일이 괜찮은데 애기 때문에 걱정 되요. 애기가 어리니까 집에 봐줄 사람 없어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A)

4.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자원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과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은 ODA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 또한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ODA 사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가장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밖에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국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이해가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직업 능력 개발 의지

FGI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전문용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요.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어서 만족해요. 그리고 번역이 잘 됐다고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E)

저는 모국에서는 일 한적 별로 없었고, 한국에서 첫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일을

하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한국사회에 돌아가는 방식도 배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계속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FGI 2차, 결혼이주여성 C)

(지금 통번역사하는 이유는) 통번역사하는 거 한국말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말 배우면 그렇게 쪽쪽쪽 그렇게 앞으로 회사,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은 또 영어... 세계 국제 회계 배우고 있어요. (FGI 1차, 결혼이주여성 B)

(다문화 이해강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몽골에서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픈데 또 말이 통 안 되면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중이에요. (FGI 1차, 결혼이주여성 C)

2) 가족의 지지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활동에 대한 남편과 확대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 활동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를 위한 해외 출장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 하는 것과 관련된다.

남편도 잘 협조해주기 때문에 전 갈 수 있어요.... 저도 물론 혼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애도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회의를 해서 어린 애들은 데리고 가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협의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도 큰 애는 학교 가고, 작은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남편이 협조 잘 해줘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B)

저 가족들이 저 직업 지금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국의 사람들을 돕고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찬성합니다. (FGI 1차, 결혼이주여성 E)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남편밖에. 하지만 지금 아기가 많이 커서 혼자 다 하니깐 출장가도 혼자

서 잘 하니까 어려움 없을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밀어주죠. (FGI 2차, 결혼이주여성 A)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면 더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찾을 수 있다고 해줬고요. 큰 애도 한국 와서 바로 유치원 보냈어요. 큰애가 저보다 더 한국말 잘 배우더라구요.... 애기가 잘 배우니까 엄마도 잘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도 많이 친해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밖에 나가도 된다고 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FGI 2차, 결혼이주여성 B)

나는 1년, 3년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대요. 1년 2년은 거기 가서 한번 (생활)하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엄마도 일 생기면 같이 가야지' 그랬는데 아빠는 '어, 갔다 와라' 이래요. (FGI 1차, 결혼이주여성 A)

3) 모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이해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언어 자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FGI에 참여한 일부 여성들은 한국 생활과 비교해 모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특히 몽골 출신 여성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몽골의 어린이 집 부족, 성교육, 가정경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모국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수요자 중심의 ODA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몽골과 한국 차이가 많이 나고,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 좀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교육을 하면 학교에서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몽골에는 교육 재료. 문구점도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몽골 선생님들의 인식 차이도 있어요. 여름에 몽골에서 선생님들이 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에 수업이 있다고 계획 세워서 오라고 하면 아무 준비도 안 해서 왔는데, 그럴 때 난감했어요.... 그리고 가계부 쓰는 인식이 없어요. 예전에 결혼이

주여성이 남편이 가계부를 쓰니까 돈 없는 사람인지 생각했대요. 선생님이 달라져야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FGI 3차, 결혼이주여성 E)

(성)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애네들이 알고 싶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일을 저질러 놓는 거예요. 열여덟, 열네 살 때면 무조건 일을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가서 해줘야 굉장히 '아, 어떻게 되면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뭐 한 단계씩 '나는 많이 배운다.' 이런 자신감도 생겨요. 그리고 부족한 거, '남자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꿈을 가져야지. 나는 이러해야지.' 근데 지금 몽골가면 대학교 여성들은 다 임신이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서 이 교육하면 저는 정말 참석하고 싶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FGI 1차, 결혼이주여성 A)

V. 결론 및 논의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강조되어짐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과 출신국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주 경험을 통해 세계화를 학습한 인력들이다. 따라서 국제화와 다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S. Jang et al., 2009; H. Ko & S. Kim, 2010).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러한 강점에 주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의 향과 ODA 사업 참여와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ODA 사업의 주요 수원국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다문화이해강사나 이중언어 강사, NGO 활동가, 무역인 등으로 활발하게 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4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ODA 사업 참여 경험', 'ODA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유', 'ODA 사업 참여의 어려움',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자원'의 네 가지 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었으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KOIC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ODA 사업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ODA 참여 경험을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과 한국을 연계하여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선행연구(M. Park et al., 2014)와 일치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을 대상으로 하는 ODA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유로는 ODA 사업 참여가 한국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국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국 소개 및 가족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국의 언어 및 문화 이해 등 본인이 지닌 자원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취업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이라는 선행연구(K. Chun, S. Kong, & K. Chung, 2014) 결과와 다른 것이다. 다른 종류의 일자리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는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향상 뿐 아니라 한국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출신국 문화 경험 및 교류 확대 등의 이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ODA 사업에서 자신이 지닌 자원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자신감과 뿌듯함을 경험하고, 한국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 나아가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내적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을 임파워먼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ODA 사업 기획 및 수행 시 결혼이주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는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확대(H. Chung, Y. Kim, & A. Lee, 2013)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문화 및 언어 자원이 취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ODA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향에도 불구하고 오랜 한국 생활로 인한 모국 현지감각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 업무 지식 부족,

한국인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등의 ODA 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복잡한 업무 내용을 전달해야할 경우나 업무 관련 전문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ODA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업무 지식 향상 및 용어 이해 등의 직업교육, 한국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등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을 ODA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문화 ODA 인력 양성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화된 훈련과 추가적인 고등교육 이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ODA 수원국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는 ODA 참여 인력이 갖추어야할 필수 역량(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출신국의 사회변화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을 ODA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신국의 문화 및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H. Ko & S. Kim, 2010).

넷째,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직업 능력 개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업무로 인한 현지 출장도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여, 이러한 측면은 결혼이주여성의 ODA 참여를 위한 자원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한국어 학습, 자격증 취득 등 직업 능력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노력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의 개발은 이들이 지닌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들만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한국인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커리어 개발 및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훈련 프로그램 마련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참여 가능한 ODA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및 ODA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성장에 따라 직업역량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이 증가(E. Jeon, 2014)하고 있으므로 이런 역량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참여에 대한 홍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극복 및 ODA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이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인력으로서의 참여 가능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ODA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존재는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자녀에게 모국 문화를 소개하고 모국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기 위해 ODA 사업 참여를 원했던 반면,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ODA 사업 참여의 방해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는 등 자녀관련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Ministers of Related Ministries, 2016)하고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관리학 분야에서의 ODA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및 교육수준 등에 따른 차별화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 ODA의 주요 수원국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전체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ODA 참여 기회와 이해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을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ODA 사업 참여를 실제로 돕기 위한 사업 영역 개발 및 구체적 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J. (2014). Phenomenological study of overseas the saemaul volunteer experience: Focusing on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and women immigrant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8(2), 209-235.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Chun, K., Kong, S., & Chung, K. (2014). A study on educational experiences in multicultural teachers training cours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2), 261-279.
- Chung, H.-S., Kim, Y. S., & Lee, A. (2013).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n bilingual educ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Jang, H. (2008). *Processional staff development in ODA*. 2008 annual symposium for human resources policy. Seoul, Korea.
- Jang, N. H. (2014). A study on foreign relief and development through use of transnational network: Focusing on Korean-Filipina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 Society of Mission Studies*, 37, 277-304.
- Jang, S., Kim, I., Lee, R., Jang, I., & Yoo, J. (2009). *Exploratory research on employment support program development for married immigrant women*. Chungbuk, Korea: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Jeon, E.-H. (2014). A narrative study on the job-seeking activities and job experience of well-educated marriage-immigrant wome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3), 233-267.
- Jung, J., & Song, J. (2014). *Post-2015 development agenda*.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im, I., Yang, I., Hwang, J., & Ko, H. (2008). *Bridge pro-*

- gram development for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eou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Kim, J., Cho, H., Lee, D., & Lee, T. (2014).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s for yout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oul,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S., Cho, A., & Min, H. (2010). *Research on employment support for married immigrant women*.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Y. (2011). *Job opportunity and job creation for married migrant women*. Gyeonggi, Korea: Gyeonggi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 Ko, H. W., & Kim, S. H. (2010). *Employment assistance measur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cused on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Kong, S. Y., & Yang, S. (2014). A process analysis of employment preparation of Chinese international 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1), 133-150.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4). *2013 KOICA performance*. Gyeonggi, Korea: Author.
- Kwon, U. (2011, November). *Mid-term fiscal plan for ODA*.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2011-2015 national finance plan for ODA. Seoul, Korea.
- Lee, N., & Chung, J.-S. (2014). *A study on skills development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to upgrade economics statu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marriage immigrant women*. Sejong,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Strategies to increase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2015 Statistics on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Korea: Author.
- Ministers of Related Ministries. (2016). *2017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jong Korea: Author.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011-2015*. Seoul, Korea: Author.
-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Survey of foreign residents*. Sejong, Korea: Author.
- No, E. (2013). Seamaul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Seamaul Academy*, 6(1), 107-202.
- Park, M., Kim, Y., & Hung, E. (2014). A study on needs of job-seeking support for the immigrant married women. *Journal of Women's Study*, 24(2), 269-302.
- Park, M.-E., Shin, H.-J., & Lee, M.-R. (2012). Employment experience of female marriage migrants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Journal of Social Science*, 23(4), 213-244.
- Yang, I., & Min, M. (2010).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heir employment policies*. Seoul,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ceived: November 15. 2016

Revised: January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